

【논 문】

20세기 아르헨티나 소설에 나타난 정체성 탐구*

김 창 민
(서울대 교수)

I. 서 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오래 동안 지속된 물음이었음에서도 아직도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다. 게다가 근대 국가가 성립된 이후 또 다른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추가되었다. 나는 어떤 나라의 국민인가? 어느 국민의 특질 혹은 속성은 무엇인가? 어느 국가의 문화적 성격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따위의 질문들이 이어진다. 오랜 세월 동안 혈통적, 언어적 동질성을 유지해온 국가에 있어서 국가적 정체성을 발견하거나 정체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립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중남미처럼 불과 수백 년 전에 완전히 이질적인 두 문화가 급격하게 충돌하고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강제적으로 지배, 대체하려 하였고, 19세기 독립

* 본 연구는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해외지역연구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이후 각 지역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과정이 상이한 경우 그곳의 한 개인, 집단, 사회, 국가의 정체성을 정의한다는 것은 실로 어렵고도 긴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한 개인과 집단에게 있어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많은 행위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체성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대륙이 바로 중남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독립이후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유럽인도 아니고, 인디오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통스런 심리적 투쟁과정 속에서 그 정체성의 빈자리를 메스티조라는 이름으로 메꾸고자 하였다. 쿠바의 국부로 일컫는 호세 마르티와 멕시코의 지성 호세 바스콘셀로스 같은 지성인들은 메스티조의 껍속에서 중남미의 화합과 희망을 찾고자 하였고 세계평화의 상징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라 플라타 강 유역의 국가들은 원주민 문화의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멕시코를 비롯한 중앙아메리카나 안데스 지방 국가들과는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원주민 문화보다는 19세기 후반 대량 유입된 유럽 백인들의 문화가 지배적인 국가에 가까웠다. 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에 이주해 와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지중해를 그리워하고 까스띠야의 평원을 그리워하였고 그들의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유럽에 두고 온 고향에 대해 수없이 들려주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그들의 후손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을 찾았을 때, 그들은 다시 아르헨티나의 팜파와 광대한 라 플라타강을 그리워하였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며 유년기와 사춘기를 보낸 팜파와 마을의 골목길과 선술집의 아코디온에서 흘러나오는 탱고음악이 그리웠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유럽의 문화의 속성으로도, 메스티조 문화의 속성으로도 자신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고유한 집단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 독립이후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 도밍고 파우스띠노 사르미엔토와 호세 에르난데스 같은 지성인들이 아르헨티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선구자들이며 그들을 뒤이어 지속적으로 문학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다루어진다. 20세기 초반 아르헨티나의 전형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찾으려고 시도하기 전까지 아르헨티나인의 전형을 유럽인이나 가우초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중 어느 쪽에서도 자신들의 대표성을 충분히 발견하지 못하였다.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어 산업화와 도시화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아르헨티나를 변모시켰을 무렵 아르헨티나인의 정체성을 도시인을 중심으로 확립해보려는 시도가 나타나기에 이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립이후, 특히 20세기 아르헨티나 문학에 있어서 아르헨티나의 국가적 정체성 탐구양상과 아르헨티나인의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을 사회, 경제적 변화과정과 연관지어 살펴보는 것이다.

II. 독립시기의 정체성 인식

라틴아메리카에서 스페인 식민체제로부터 독립을 희망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18세기 중반부터이다. 스페인에서 합스부르크 왕가가 끊어지고 부르봉 왕가가 들어서면서 식민통치를 강화하고 더 많은 부를 가져가기 위해 식민지 엘리트를 공직에서 배제하고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하여 식민지 토착세력과 주민들의 불만이 증증하였다. 동시에 서구의 계몽주의와 자유무역주의 사상이 유입되고,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을 목도하면서 독립에 대한 열망은 고조되었다. 1808년 나폴레옹의 조카가 스페인의 왕이 되면서 본국의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들자 아르헨티나는 1810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자들의 주도로 독립을 선언한다.¹⁾

하지만 이 독립 주도 세력의 정치적 기반은 취약하였고, 정치, 경제적으로 수세기 동안 지속된 중세적 질서가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1) 민만식, 강석영, 최영수 공저, 『중남미사』, 민음사, 1993, 67-81쪽.

근대국가를 완성하고자 하는 그들의 이상은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국민들이 일체감을 느끼도록 해야 하는데 아르헨티나는 인종, 계층, 문화, 지리, 경제적 이해 등 모든 면에서 많은 괴리를 지니고 있었다.

중미나 안데스지역 국가들에 비해서 소수이긴 하지만 아르헨티나 북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안데스와 칠레 등지와 더 많은 교류를 하던 인디오들이 있었고, 팜파지역에는 수세기 동안 유목에 종사해 온 가우초들과, 대농장을 소유하고 목축과 농업에 종사하는 봉건적 지주들이 있었다. 해안지방에는 흑인들과 흑인 혼혈들이 있었고,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는 상업과 무역을 주요 경제활동으로 하고 있는 백인들이 있었다. 지역간의 경제적 갈등, 까우디오들의 전횡도 국민국가를 이루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특히 지방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사이의 하구 이용권과 그 수익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독립과 함께 중앙정부 권력의 공백기를 맞아 한층 권력을 강화한 까우디오들의 폭력통치와 지방분권주의는 통일된 근대국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었다.²⁾

동시에 그들의 문화는 인종과 경제활동상의 차이만큼이나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 경제, 인종적 문제 이외에도 아르헨티나는 내세울 만한 문화적 전통이나 유산이 없었다. 드넓은 팜파에서 느끼는 공허함은 문화적 빈곤함으로 배가되었다.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광활한 팜파, 바다 같은 강은 서구적 문명을 그리워하던 당시의 지식인들에겐 더욱 위협적인 존재였다.³⁾

이러한 상황에서 로사스가 집권한 1829까지 중앙정부는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각 지방은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었다. 대농장주 출신인 로사스는 1829-32 사이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지사를 역임하면서 인디오들을 박해하고 추방했으며, 1835년 대통령이 되어 52년까

2) 같은 책, 255-261쪽.

3) Jean Franco, *Historia de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Ariel, Barcelona, 1975. pp.68-9.

지 비밀경찰을 통하여 공포정치를 유지했다. 로사스는 연방주의를 내세우면서 겉으로는 까우디오들의 지방자치를 인정하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중앙집권주의자들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자유주의자들과 지방의 분권주의자들을 탄압하면서 강력한 통치를 펼쳐 어느 면으로는 국가적 통합의 기반을 닦은 대통령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의 전임자였던 자유주의자, 베르나르디노 리바다비아가 개방정책과 외국자본을 통해 발전을 추구하려고 한 반면, 로사스는 우선적으로 목축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외국자본이나 이민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 로사스의 정책은 산업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국가를 야만적이고 목가적인 상태에 머무르게 할뿐이었다. 어쨌든 로사스는 후스또 호세 데 우르끼사 장군을 중심으로 한 동맹군에게 패퇴하여 영국으로 망명한 1852년까지 집권하였다. 그래서 이 시기의 문학작품은 대부분 망명을 경험한 자유주의 이념을 지닌 지식인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재자 로사스의 폭정과 실정을 고발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조직화를 위한 바탕과 출발점』(*Bases y puntos de partida para la organiza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argentina*, 1852)를 쓴 환 바우티스타 알베르디(1810-1884), 아르헨티나의 현실을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해석한 도밍고 파우스티노 사르미엔토(1811-1888), 로사스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오월협회(Asociación de Mayo)를 조직한 에스페반 에체베리아(1805-1851), 시인이자 낭만주의 소설가인 호세 마르물, 정치적 글을 많이 쓴 알베르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중에서 아르헨티나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가로 평가되고, 동시에 독립직후 혼란한 시대를 살은 지식인의 고뇌를 대변하는 작가로 인정받는 에스페반 에체베리아는 1825년 유럽으로 건너가 소르본느에서 유학을 하면서 파스칼, 몽테스끼외, 샤토브리앙 등과 당시 프랑스, 영국의 낭만주의자들의 사상을 배우고 1825년 아르헨티나로 돌아와 실망스런 조국의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문학모임을 주도하였다.

그의 문학관은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작품의 내용과 형식』(*Fondo y forma en las obras de imaginación*)이라는 수필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그는 쉴러젤이나 헤르더 같은 낭만주의자들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인간의 도덕적인 관념을 보편적인 것인데, 한 정부의 관심과 도덕관이 그 국가의 독특한 성격을 만든다고 했다. 그리고 “오래된 과거의 어떠한 형식에도 잘 맞지 않는 중남미의 문학은 열대 식물에서 보여지는 다양함과 대조, 조화와 활력을 보여주어야 한다”⁴⁾고 역설한다.

그는 정치적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문학 작품은 적은 편이다. 그 중에서 장편시 형식의 이야기인 「포로여인」(*La cautiva*)와 단편 「도살장」(*El matadero*)이 유명하다.

「포로여인」⁵⁾은 19세기 아르헨티나에서 인디오들의 포로가 되어 추장에 바쳐진 백인여인이 목숨을 걸고 문명을 향해 탈출을 감행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마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서, 사랑이라는 테마와 자연경관의 묘사에 있어서는 낭만적인 요소가 발견되지만,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유럽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유럽의 낭만주의 작품에

4) Esteban Echeverría, “Fondo y forma en las obras de imaginación”, *Obras Completas*, V, pp.78-80. Jean Franco, *Historia de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p.71에서 재인용. 중남미문학에 대한 에체베리아의 이러한 태도는 20세기들어 유럽의 세계관과 미학에서 벗어나 중남미 고유의 세계관과 미학을 확립하려 했던 알레호 가르뻬띠에르의 견해와 매우 유사하여 주목을 끈다. 알레호 가르뻬띠에르도 중남미 자연에 대하여 에체베리아가 느낀 것 같은 인상을 피력하면서 ‘경이로운 현실’과 ‘바로크적인 현실’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중남미의 미학을 주창하였다. (Alejo Carpentier, *El reino de este mundo*, *Obras completas* II, Siglo veintiuno editores, p.14.; *La novela latinoamericana en vísperas de un nuevo siglo y otros ensayos*. Siglo veintiuno editores, 2a edición, p.133.)

5) 8음절 시로 9개의 장과 에필로그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공간적 배경이 되는 광활한 사막과 광부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작품의 사건을 압도하고 있고, 그 곳에 사는 인물들의 성격을 규정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Historia de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Universidad nacional de educación a distancia, Unidad 1. p.87-88.)

서는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문명을 피해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아르헨티나에서 자연은 폭력과 죽음이 상존하는 야만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그려지는 인디오는 아르헨티나 국민의 일원이라기보다는 제거되어야 할 야만적 인간들로 짐승처럼 다루어지고 있다. 물론 포로여인 마리아와 그의 유약한 남편 브리앙은 쇠락해 가는 서구의 백인 문명을 상징하고, 인디오의 야만적 모습과 그들을 둘러싼 무자비한 자연은 중남미의 생명력과 희망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할 때 작가는 절대로 야만적 힘이 문명을 압도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유럽의 낭만주의 작품들은 문명의 때가 묻은 도시를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주인공들을 그리고 있지만 당시 아르헨티나의 문학작품은 그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아직 산업화, 도시화되지 않은 아르헨티나의 현실과, 아르헨티나를 유럽과 같은 문명사회로 만들고 싶어했던 지식인들의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편 「도살장」은 이상주의적이지만 무기력한 백인과 활기차고 잔인하기까지 한 토착세력 사이의 대립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포로여인」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문체에 있어 낭만주의적 문체로 쓰여진 「포로여인」과는 달리 「도살장」은 사실주의적이며 동시에 풍속주의적인 묘사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단순한 풍속의 묘사에 그치지 않고 로사스의 독재체제와 연방주의자들, 독재정권과 손잡은 교회를 신랄하게 조롱하고 있다. 로사스의 독재체제를 상징하는 도살장을 중심으로 개처럼 묘사되는 백정들과 흑인, 그 혼혈들의 행동은 유럽식의 이성적 문명이 발붙이기 힘들 정도로 야만성이 지배하는 당시 사회의 모습을 재현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 독립 이후의 혼란기에 아르헨티나의 국가적 정체성에 관해서 가장 명료하고 포괄적으로 다룬 작품이 도밍고 파우스띠노 사르미엔토의 『문명과 야만. 환 파곤도 끼로가의 생애와 아르헨티나의 물리적 형상, 관습과 습관』(*Civilización y barbarie. Vida de Juan Facundo Quiroga, y*

aspecto físico, costumbres y hábitos de la República argentina, 1845)이다. 이 작품은 3부로 되었으며, 각 장마다 다른 장르로 이루어진 복합적 장르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제 1부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사회적 특성과 국민성을 환경결정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제 2부는 파곤도 끼로가의 전기를 다루고, 제3부는 로사스 독재에 대한 비판과 아르헨티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학, 전기, 정치론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역사서, 증언문학, 수필, 소설 등의 특성들을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작품이다.

실증주의의 환경결정론의 시각에서 사르미엔토는 아르헨티나 국민성의 형성에 자연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광대한 영토에 소수의 인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상황에서는 도시생활과 동의어로 된 문명이 태동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실증주의 사고와 낭만주의, 나아가 계몽주의 사상이 함께 섞여 있는 그의 사고는 아르헨티나의 현실을 문명과 야만과⁶⁾ (도시/농촌, 도시인/가우초, 중앙집권주의자-자유주의자/연방주의자-까우디오)으로 이분하고 근대국가의 건설을 위해서 야만인들을 문명인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부류는 과감히 도태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야만’이라는 단어는 아르헨티나의 모든 악을 지칭하는 말이다. 가우초 출신으로 작가가 태어난 지역의 지배자가 된 끼로가는 ‘야만’의 화신이다.⁷⁾

6) ‘문명’이라는 단어는 1757년 미라보 후작이 처음 사용했으며 인류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상태를 의미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그리이스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외부의 타자를 ‘야만’으로 정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구분은 서구의 내부 자체에서도 문명과 야만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확대되어 갔다. 프랑스 혁명 당시의 자코뱅당은 앙시앵 레짐의 ‘야만적인’ 무지와 전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문명’을 대비시켰다. 그리고 1789, 1830, 1848년의 연이은 혁명으로 진저리가 난 프랑스인들은 중국에는 혁명의 추종세력이었던 대중을, 사회적 안정을 해치고 자신의 잇속만 챙기는 천박한 야만인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Maristella Savampa, “El dilema argentino: civilización y barbarie”, de *Sarmiento al revisionismo peronista*, Buenos Aires, Imago mundi, 1994, 17-20, 우석균, “도밍고 파우스티노 사르미엔토: 국민국가 형성의 딜레마”,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사상』, 172쪽에서 재인용)

물론 이 작품도 낭만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파꾼도 끼로가나 로 사스, 그외의 gaucho들은 유럽의 낭만주의 작품에 나오는 영웅적인 인물들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르미엔토의 작품에서 주인공은 작가가 이상화시키고자 했던 인물이 결코 아니다. 작가가 도시문명의 비인간적 행태를 거부하면서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으로 자연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는 ‘야만인들’의 문명화를 위해 교육을 강조했으며, 아르헨티나의 근대화를 위해 서구에서 문명인들을 이민으로 받아 내륙지역에서 정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⁸⁾ 로사스 정권에 쫓겨 칠레로 망명하고 있던 시절인 1841-42년, 그는 영국의 제국주의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지방자치를 옹호하는 글을 발표하였지만, 1845년 파꾼도의 출판과 함께 태도를 바꾸어, 아르헨티나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종속을 무릅쓰고라도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의 자본과 기술, 재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⁹⁾

국가적 정체성을 살펴보는 이 글의 목표와 관련하여 이 시점에서 지적해야 할 점은, 사르미엔토의 이민정책은 비록 후임정부가 인디오들에게서 뺏은 토지를 유럽이민들에게 주지 않고 대지주에게 넘겨줌으로써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20세기초까지 유럽으로부터 이민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됨으로써,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의 변화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7) 사르미엔토가 gaucho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만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그는 일반적인 gaucho들의 환경 적응능력이나 직업적인 기술, 추적자(rastreador)나 길 안내인(baquiano) 등의 뛰어난 관찰력과 예지력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Domingo Faustino Sarmiento, *Facundo o civilización y barbarie*, Unam, 1982, pp.49-52)

8) 사르미엔토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인 『아메리카 인종의 충돌과 화합』(*Conflictos y armonías de las razas de America*, 1883)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소로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인종적 결합을 꼽고 있다. 동시에 아메리카를 유럽식으로 만드는 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겨졌다. (Jean Franco, Op.cit., pp.81-82)

9) William H. Katra, “Sarmiento y el <Americanismo>”, *Identidad cultural de Iberoamerica en su literatura*, Saúl Yurkievich (Coordinador), Alhambra, Madrid, 1986., pp.67-68.

점이다.

문명과 야만이라는 테마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또 다른 작가는 호세 마르몰 (1817-1871)이다. 그의 소설 『아말리아』(*Amalia*, 1851)는 두 연 인간의 사랑 이야기를 빌어 로사스 정권의 공포정치를 드러내고 있다. 에두아르도 벨그라노는 로사스 독재정권에 투쟁하는 단체에 합류하기 위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탈출하는 도중에 부상을 입는다. 그의 친구 다니엘 벨요는 에두아르도를 추적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사촌누이로서 과부로 지내는 아말리아의 집에 숨긴다. 그 집에 숨어지내면서 에두아르도와 아말리아는 사랑에 빠지게 된다. 주변 상황을 그들을 점점 궁지로 몰아가자, 그들은 도주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도주 전날 결혼식을 올린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로사스 일당의 함정에 빠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

이 소설은 낭만적 사랑을 그리는 것보다는 로사스 정권의 야만적 통치를 고발하는데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소설도 문명과 야만을 인종적인 요소와 결부시킨다. 문명인들은 소수의 백인 지식인 집단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우초, 흑인, 몰라또는 야만인들이다. 고독과 자연, 자유와 독립정신이 몸에 밴 가우초들은 도시 문명에 항상 위협적인 존재들로 그려진다. 에두아르도를 배신한 메를로는 도시로 온 가우초이다. 또 로사스 곁에서 아침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희생당하고 마는 인물도 몰라또이다. 그에 비해 로사스에 저항하는 세력은 유럽식 사고와 행동을 하는 중상층 계급의 백인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혈통과, 지식, 도덕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로사스는 유색 하층민들이 중상층 백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감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이처럼 『아말리아』에 나타난 아르헨티나는 백인/유색인, 유럽문화/유색인문화, 도시/팜파 등으로 뚜렷하게 이분화되어 있다.

에체베리아, 사르미엔토, 마르몰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이들의 낭만주의 작품에서는 유럽과는 달리 도시는 인간을 병들게 하는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해야 할 문명의 상징이요, 농촌

은 인간이 돌아가야 할 순수한 곳이 아니라 야만이 판치는 곳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아르헨티나는 인종적, 지리적, 문화적 측면에서 문명과 야만을 이루는 대립적 요소들로 분열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당시의 모든 문학작품이 이분법적으로 유럽식 문화가 문명을 대표하고 유색인과 gaucho 문화가 야만을 대표하는 식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철도 건설과 백인들의 토지소유욕에 의해 인디오와 gaucho가 삶의 터전을 상실해가면서 그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겨나게 되었다.

루시오 만시야(Lucio Mansilla, 1831-1913)는 철도건설을 위해 인디오들의 땅을 양도받기 위해 인디오지역을 방문하여 그들의 삶을 접하면서 느낀 바를 여행기 형식의 작품인 『랑겔레스 인디오 탐방』(*Una excursión a los indios ranqueles*, 1870)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인디오들의 비위생적이고 미개한 생활양식에 대해 혐오감을 나타내 보이면서도 그들에게 발견되는 긍정적인 덕성에 대해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동시에 이익만을 추구하는 백인 문명의 비도덕적인 측면을 비난하고 있다. 그는 백인문명의 우월성을 원주민 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우월성에서 찾으면서, 백인들이 인디오들을 설득하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참된 기독교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디오들의 야만적인 행동과 생활양식은 가난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것들은 가난한 백인들 사이에도 발견된다고 고백한다. 비록 그는 정부로부터 인디오들의 땅을 양도받으라는 임무를 띠고 갔지만, 철도건설을 통해 오랜 세월동안 가치 있는 문명을 이룩해 온 인디오들이 고통받고 사라질 것을 예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III. 산업화, 도시화 시대의 정체성 인식

호세 에르난데스(1834-1886)는『가우초 마르틴 피에로』(*El gaucho Martín Fierro*, 1872)를 통하여 근대화, 산업화를 통해 사라져가는 gaucho

초의 슬픈 운명을 시형식으로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당시 대중들에게 호평을 받았는데, 그러한 대중성 때문에 소수 지식층으로부터는 멸시를 받았던 작품이다. 그러나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스페인의 우나무노는 이 작품에서 정복자들의 정신을 읽었으며, 모더니스트 시인 레오뵈도 루고네스는 아르헨티나의 서사시라고 평가했고, 아르헨티나의 민족주의자 리카르도 빨마는 아르헨티나 최고의 시라고 극찬했다. 풍자와 비판을 특징으로 하는 가우초 문학의 전통을¹⁰⁾ 이어받은 이 작품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풍자할 뿐 아니라, 가우초의 진정한 정서와 언어를 바탕으로 가우초들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연방주의자로서 농촌의 삶을 옹호하던 작가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듯한 주인공 마르틴 피에로는 일인칭 서술을 통해 자신의 불행한 인생을 노래한다. 가우초이자 음유시인이었던 마르틴 피에로는 정부에 의해 징집되면서 자유로운 가우초의 삶을 박탈당하고, 국경지방에서 인디오들과 전투를 치르다가 부당한 대우에 불만을 품고 탈영을 하여 가족을 찾지만 그의 가족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이 순간부터 그는 난폭한 “호랑이”로 변하여 모든 제도와 법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혐오하게 된다. 작품의 마지막에서 피에로는 20년만에 자기 자식들을 만나지만, 그들의 지난 과거를 듣고 다시 헤어지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놓인다. 그는 비참한 가우초의 운명을 한탄하며 유랑의 운명을 받아들인다.

사르미엔또나 에체베리아, 마르몰 등의 작가들이 유럽적 시각으로 아르헨티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개혁하려 했다면, 호세 에르난데스는 아르헨티나식의 발전모형을 상상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는 당시 대립적이던 가치와 세력들 가운데서 비유럽적이면서 아르헨티나의 대지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들이 보다 인간적이고 가치있는 것

10) 가우초 문학은 독립시기의 우투구아이 시인 바르톨로메 이달고 (1788-1822)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가우초의 언어와 민중의 노래 가락을 빌어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유인물을 제작했다. 그의 뒤를 이은 일라리오 아르카수비 (1807-1875), 에스파니스라오 델 캄뵈 (1834-1880)에 이르면서 가우초 문학은 정치현실에 대해 더욱 풍자적으로 되어갔다. (Jean Franco, Op.cit., p.89)

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마르틴 피에로가 겪게 되는 생존의 위기와 아르헨티나적 가치에 대한 애착은 리카르도 구이랄테스(1886-1927)의『돈 세군도 솜브라』(*Don Segundo Sombra*, 1929년)에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이 작품은 근대화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확산, 이민, 도시화 등으로 gaucho의 설자리가 점점 사라져 가는 현실을 서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주인공 소년 파비오 까세레스는 서자로 태어나 고모들의 냉대 속에서 고아처럼 자라게 된다. 그는 학교에도 관심이 없고 마을의 술집을 기웃거리거나 낚시로 시간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을 지나게 되는 돈 세군도 솜브라의 성품에 매료되어 파비오는 그를 따라 나선다. 돈 세군도 솜브라는 파비오에게 gaucho들에게 직업적으로 필요한 기술과 지식뿐 아니라 보다 성숙된 인간이 되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대로 파비오가 자신의 마음과 육체적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인간이 되었을 때 어디론가 사라진다. 마르틴 피에로가 불행한 운명애다 온갖 결점을 지닌 반영웅적인 인물이라면 돈 세군도 솜브라는 피에로의 모든 단점을 순화시킨 완벽한 성품의 이상적인 인물이다.¹¹⁾

이처럼 신비주의적 분위기가 농후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르헨티나의 민족주의 작가들로부터 민족문학의 본보기로 여겨져 온 작품이

11) 마르틴 피에로가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처지였다, 수시로 칼을 휘두르며 폭력을 일삼고 분노와 복수심을 자제하지 못하는 평범한 gaucho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르헨티나인들에게 국가적 정체성의 상징으로, 국가적 영웅으로 여겨지던 상황 아래서 리카르도 구이랄테스는 보다 세련되고 모범적인 모습의 gaucho를 창조하고 싶은 욕망에서 이상적인 돈 세군도 솜브라를 창조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Ricardo Navas Ruiz, "Personaje e identidad nacional: de Martín Fierro a Don Segundo Sombra", en *Identidad cultural de Iberoamérica en su literatura*, Editorial Alhambra, Madrid, 1986, p.197.) 필자는 덧붙여, 비록 솜브라가 이상적인 가치를 지닌 gaucho이지만 대부분의 아르헨티나인들에게는 아르헨티나인을 상징하는 인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악행을 저지르고 번뇌하고 후회하는 피에로의 인간적인 모습에서 진정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¹²⁾ 사라져 가는 아르헨티나의 시골의 일상들과 가우초들의 노동에 대한 애정 어린 향수가 배어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작품이 앞에서 살펴본 작가들처럼 문명과 자연, 도시와 시골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연과 비문명적 삶을 선택해야 할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작품의 마지막에서 주인공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파비오를 자식으로 인정하고 농장을 유산으로 남겨주자 파비오는 가우초 생활을 청산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에서 암시되듯, 가우초들에게 문명적 삶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인식했으리라고 추측된다.

물론 도시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도 부정적으로 비치는 것들은 많다. 판사와 변호사, 술집주인은 인간 사회적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존재들이다. 이 작품에서 자연은 무심한 존재로서 가우초는 생존하기 위해 그 자연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다. 때로 자연은 잔인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그러한 자연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선 인간은 자신의 본능과 욕망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단순히 문명적인 삶을 버리고 자연 속에 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작품이 아니다. 또한 가우초들의 삶과 가치가 이상적이라는 것도 아니다. 그 역시 가우초의 남성우월주의와 본능적인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작가가 돈 세군도 솜브라의 삶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금욕적 무위주의이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가치로 타락된 도시적 삶이 아니라 아직 때가 덜 묻은 팜파에서의 삶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¹³⁾

유럽문화와 토착문화, 도시와 시골의 만남과 충돌은 보르헤스의 문학

12) 하지만 보르헤스는 이 작품이 가우초의 전통과 비교해 볼 때 민족주의 작품으로서 이질적인 점들이 있다는 것을 꼬집는다. 즉 『돈 세군도 솜브라』는 지방 언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은유들만 잔뜩 나열되어 있어 당시 프랑스 시파의 영향이 지나치게 두드러진다고 지적한다.(Jorge Luis Borges, "El escritor argentino y la tradición", *Discusión*(1932), *Obras Completas*, Emecé editores, Barcelona, 1989, p.271.)

13) Jean Franco, *Op.cit.*, 243-6쪽.

에서도 볼 수 있다. 보르헤스 자신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근교, 빨레르모의 전통적 꼬리오요 집안에서 어린시절을 보내면서 아르헨티나의 문화를 육화했다. 동시에 제네바에서 교육을 받았고, 마드리드에서 극단주의(Ultraísmo) 작가들과 교분을 맺었으며, 어릴 때 영어로 된 소설들을 많이 읽었던 사실들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문화에도 익숙했다. 그는 두 세계의 문화를 흡수했다. 하나는 군인인 할아버지가 상징하는 꼬리오요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인 할머니가 상징하는 유럽적인 세계이다. 그렇지만 그 두 문화 중 어느 것에서도 중심에 서지 못하고 두 문화의 경계와 변방에서 지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두 문화의 만남과 충돌은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¹⁴⁾

보르헤스의 단편집 『허구들』(*Ficciones*, 1944)에 나오는 「남부」(*El sur*), 「종말」(*El fin*), 그리고 『알렙』(*El Aleph*, 1949)에 나오는 「전사와 포로이야기」(*Historia del guerrero y de la cautiva*)는 아르헨티나 문화의 정체성과 관련된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종말」은 호세 에르난데스의 『과꾼도』와, 「전사와 포로이야기」는 에스페반 에체베리아의 「포로여인」과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종말」은 아르헨티나 문화의 정체성과 아르헨티나 문학의 성격과 진로와 관련해 보르헤스를 포함한 아방가르드의 의도가 베어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보르헤스는 에르난데스가 쓰지 않은 피에로의 최후 부분을 쓰고 있다. 탈영을 한 뒤 무법자가 된 피에로는 선술집 입구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충동과 인종적 편견으로 흑인혼혈 가우초 한 명을 죽인다. 그 혼혈 가우초의 동생이 나타나 빠야다(*payada*) 시합(기타를 치면서 즉흥적으로 가사를 엮어내는 시합)을 하자고 하면서 복수의 기회를 엿보지만 피에로의 자식들 앞에서 차마 죽일 수 없어 그냥 헤어

14) 보르헤스 연구가인 베아트리스 사를로에 따르면, 보르헤스는 자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인들이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러한 주변적 위치가 자기 문화에 매몰된 유럽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자유를 라틴아메리카인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운명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보르헤스와 아르헨티나의 문학』, 88쪽)

지면서 훗날을 기약한다. 하지만 에르난테스의 시에서는 이 동생과 피에로의 두 번째 대면은 일어나지 않는다.

보르헤스는 이 두 번째의 만남을 「종말」을 통해 그려 보이고 있다. 그들의 만남이 있는지 7년 뒤, 이제 피에로는 명예로운 죽음만을 기다리는 늙은 노인이다. 가우초들의 관례에 따르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는 결투를 통해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 동생이 선술집에서 피에로를 기다리는 것으로 소설은 시작된다. 서로가 다시 만나리라는 믿고 있었다. 빛은 어떤 식으로든지 갇아져야 하며, 결투는 그들의 문화에서 명예와 직결되는 의식이었다. 다시 만난 그들은 첫 번째 만남을 상기하고, 피에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에르난테스가 작품 속에서 그린 것처럼 회상한다.¹⁵⁾

루고네스가 보기에 마르틴 피에로는 아르헨티나의 특성과 덕목을 상징하는 인물이요, 국민성의 신화적 모델이었다. 보르헤스가 속했던 토착 엘리트들 또한 「마르틴 피에로」를 아르헨티나 문학의 신화적 근원이자 일종의 성전으로까지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민자들도 가우초 문화로 상징되는 민족성을 이해하고 이에 동화되고 싶어했기에 자주 이 작품을 언급했다.¹⁶⁾

하지만 보르헤스가 그리는 초라한 노인, 피에로는 국민적 서사시의 영웅과는 판이한 모습이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수긍하고, 자신의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려는 분별력 있는 평범한 인간이다. 보르헤스는 에르난테스 시가 내포하고 있는 숙명론을 포착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주인공의 숙명적 종말과 결부시킴으로써 피에로를 서사적 해석의 중압감과 과장된 비평으로부터 해방시켰다. 동시에 객관적 해석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문학생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보고(寶庫)로 새로운

15) Jorge Luis Borges, *Obras Completas*, Tomo 1, Emecé editores, Barcelona, 1989, pp.519-521.

16) 베아트리스 사를로, 같은 책, 90-91쪽.

자리매김을 시도했다.¹⁷⁾ 이 피에로의 삶에 대한 세속화 과정과 숙명을 받아들이는 나약한 죽음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측면은, 수 십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던 가우초는 이제 그 상징성을 상실하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통적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회생당하는 초라한 가우초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그의 죽음은 그때까지 유지되어 온 아르헨티나 문학적 신화, 문화적 정체성의 종말이었다.

「전사와 포로여인 이야기」의 첫 부분은 라베나(Ravena) 점령 당시 자기편을 배반하고 자신이 공격했던 그 도시를 지키다가 전사한 롬바르드 출신의 전사인 드록툴프트(Droctulft)를 연구했던 라틴계 역사학자인 베네데토 크로체(Benedetto Croce)를 인용한다. 보르헤스는 드록툴프트의 그 결심에 대해 연민 어린 관심을 보이면서 그와 유사한 포로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간다.

보르헤스의 할머니로 가정되는 영국 여인이 인디오들에게 납치된 어느 영국 여인을 알게 된다. 이 포로여인은 요크셔 출신이며, 부모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민을 왔고, 인디언의 습격으로 부모를 잃고 인디언들에게 잡혀와서 지금은 주장의 아내로서 아이들을 낳고 살고 있으며 남편은 매우 용맹스럽다고 말했다. 그 야만적 삶에 자신을 맡긴 동포여인의 말을 들은 화자의 할머니는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놀랍기도 하여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종용한다. 할머니는 그녀를 보호해 줄 것이며 아이들도 되찾게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그 여인은 자신은 행복하며 그날 밤으로 다시 그 황야의 인디오 세계로 돌아가겠노라고 대답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르헤스가 태생적으로 두 개의 문화 속에 몸담고

17)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르헤스는 『가우초 마르틴 피에로』를 국민적인 서사시로 치켜세웠던 루고네스의 의견을 반박하면서, 이 작품은 오히려 소설적인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사시의 주인공은 모름지기 완벽해야 한다는 게 보르헤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마르틴 피에로는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이며, 그러한 불완전함이야말로 소설 속 인물들의 전통에 더 가깝게 만든다고 했다. (Jorge Luis Borges, "La poesía gauchesca", *Discusión*, *Op.cit.*, pp.193-197.)

있다는 사실은 그가 「전사와 포로여인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바탕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보르헤스에 의하면 천 삼백 년의 세월과 바다를 사이에 둔 이 두 이야기는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한 이야기이다. 드록툴프트나 포로여인이나 배신자가 아니라 개종자였을 뿐이다. 그들은 이성보다 깊은 곳에 있는 비밀스런 충동에 이끌려 자신들의 세계를 포기한 것이다.¹⁸⁾

이 「전사와 포로여인 이야기」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점은, 이 작품이 앞에서 언급한 에스페반 에체베리아의 「포로여인」과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갖는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에체베리아의 작품에서 포로가 되어 추장의 첩으로 살고 있던 백인 여인은 목숨을 걸고 인디오들의 ‘야만적’ 세계를 탈출하여 백인들의 ‘문명’세계로 돌아가려고 한다. 물론 그녀에게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문명과 야만 중에서 문명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보르헤스의 작품에서는 완전히 역전이 되었다. 하지만 보르헤스의 작품에서는 문명과 야만의 대립 속에서 야만을 선택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제 두 세계는 문명과 야만 혹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으로 규정할 수 없는 세계들이라는 점을 보르헤스는 암시하고 있다. “신의 입장에서 보면 동전의 안과 밖 같은 동일한 세계들인 것이다”. 다시 말해 에체베리아식의 유럽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난 아르헨티나의 지식인, 보르헤스의 관점을 드러내 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부」에서는 아르헨티나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유럽적 전통과 끄리오요적 전통을 함께 지니고 있는 아르헨티나인의 숙명을 그리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 후안 달만(Juan Dablmann)의 할아버지는 독일 출신의 개신교 목사이며, 외할아버지는 인디언들과의 전투에 참가했던 끄리오요 군인이었다. 달만은 막연한 끄리오요 정서를 간직하고 있는 애매한 자유주의자이다. 그는 어느 날 열려진 창문에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고 심하게 앓은 뒤 허약해진 심신을 요양하기 위하여 상속으로 물려받은 농장

18) Jorge Luis Borges, Op.cit., pp.559-560.

을 찾는다. 열차가 정구역에 멈추지 않아 전혀 낯선 곳에 내린 그는 어느 객주집을 찾는다. 그곳에서 낯설고 신비한 분위기를 느끼지만 그것에 자신을 내맡긴다.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가우초들은 그에게 시비를 건다. 달만은 가우초들의 공격적 행동을 무시할 수 없으며 충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순간을 피한다면, 사람들이 그에게 겁쟁이 처럼 행동했다고 얘기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근처에 있던 늙은 가우초 한 명이 그의 발치에 칼 한 자루를 던져준다. 달만은 그 칼을 주워 들고 한밤중의 결투를 치르기 거의 쓸 줄도 모르는 칼을 움켜쥐고서는 들쭉으로 나간다.¹⁹⁾

「종말」에 그려진 마르틴 피에로와 마찬가지로 달만 역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피에로가 가우초들의 행동양식을 평생 지켜온 이상 그 결투가 피할 수 없었다면, 달만의 경우 그는 두 문화의 행동양식 중 하나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 또한 그로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복합적 문화의 산물인 달만이 남부의 농장으로 가서 건강을 회복하고 동시에 뭔가 다른 것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순간부터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꼬리오요 전통문화를 선택한 것이다. 달만의 태생적 조건과 환경을 고려할 때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두 문화 속에서 살면서 어느 순간 한 문화적 행동을 선택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아르헨티나인들의 공통적인 속성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문명과 야만, 도시와 시골, 유럽문화와 토착문화 등으로 분류되는 두 문화의 경계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라고 보르헤스는 생각한다. 그가 자신의 초기 시 작품에서 가장 아르헨티나적인 풍경이라고 묘사한 오리야스(orillas: 도시와 농촌이 만나는 곳, 변두리, 가장자리)가 바로 아르헨티나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라고 보르헤스는 생각하고 있다.²⁰⁾ 그의 작품에서도 보듯이 아르헨티나인은 두 이질

19) Ibid., pp.525-530.

20) 베아트리스 사를로, 같은 책, 63-4쪽. 그녀에 따르면 오리야스는 주로 부에노

적인 문화의 경계 혹은 주변부에 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그 두 문화 중 어느 것에도 중심에 서 있지 않는다. 그렇다고 두 문화로부터 배제되어 있지도 않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르헤스는 아르헨티나 문화의 전통이 모두 서구 문화로부터 유래했지만 서구국가의 주민들보다 더욱 찬란하게 그 전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는 아르헨티나인을 비롯한 모든 중남미인들은 서구문화 속에서 활동하고 모든 유럽적인 주제를 다루되, 그것에 사로잡히거나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동시에 아르헨티나 문학은 모든 문화들로 짜여진 섬유 조직과 같은 것으로 여러 요소들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독창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¹⁾ 그는 아르헨티나 문학이 서구나 다른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열등한 문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에서 암시되듯이, 원작자나 원작에 대한 기존의 의미는 상실되고 의미는 독자와 해석이 텍스트와 대면하는 그 경계지점에서 구축된다. 이제 원작에 부여된 위계질서는 존중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주변부의 열등함도 사라지고 주변부 작가는 유럽의 선배작가들이나 동시대의 작가들과 동등한 위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보르헤스가 첫 번째 소설집인 『불한당들의 세계사』(*Historia universal de la infamia*, 1935)에서 성취하고자 한 목표였다고 사를로는 보고 있다. 그는 빌려온 소재들과 동양적인 픽션들을 서구식으로 재

스 아이레스 주변에 펼쳐져 있던 팜파 지역과 그에 근접한 도시외곽 지역을 의미하고, 그곳에 사는 하층민을 지칭하는 오리예로(orillero)는 대개 조잡하거나, 거칠다는 인식을 주로 내포했다. 또 이들은 시골의 과거 풍습이나 태도를 많이 보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오리예로는 반은 초원에서, 반은 도시적인 일터(한 예로 도살장 같은 곳)에서 주로 일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우초 선조처럼 칼을 잘 다뤘으며 서로 결투를 벌일 때도 그 기술을 심반 활용했다. 이 오리예로에서 더욱 신화적으로 발전된 단계가 바로 ‘꼼빠드리토스(compadritos)’였으며, 나중에는 탱고가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함으로써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21) Jorge Luis Borges, *Obras Completas*, Tomo 1, pp.272-273.

편성하거나 복미의 부랑아들과 총잡이들의 삶, 거의 무의미한 에피소드 일 것 같은 중국 해적들과 페르시아의 격언, 또는 일본 무사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작업했다. 보르헤스는 서구문화와 동양문화 사이에서 위대한 문학전통을 잇는 주변인의 이야기를 찾아내려고 시도했으며, 한편으로는 탐정 (추리)물에 대한 기호와 모험소설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변경에서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는 변경인으로서의 자유를 가지고 이것들을 창조했다.²²⁾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기의 아르헨티나적 특성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인 작가로 에두아르도 마예아(Eduardo Mallea, 1903-1982)를 거론할 수 있다. 그는 급진적인 정부 하에서 성장한 지방출신의 자유 지식인이었다. 보수과두세력의 집권 하에서 많은 글을 발표하면서 걷은 화려하면서도 속이 빈 사회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아르헨티나의 정체성과 개인과 사회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많은 수필과 수필성격을 띤 소설을 썼다.

『어느 아르헨티나적 열정에 관한 이야기』(*Historia de una pasión argentina*, 1937)²³⁾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탐색은 그의 대표소설 『침묵의 만』(*La bahía del silencio*, 1940)²⁴⁾이나, 『탑』(*La torre*, 1951)의 작중 인물들인 마르틴 드레구아나 로베르토 리카르떼등을 통해 진보를 앞세운

22) 같은 책, 76-77쪽.

23) 이 책은 작가의 지적, 정신적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서구세계에서 화두가 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는 작품으로 당시 중남미 여러국가에서 많이 읽혔다. 그의 작품은 물질문명의 위기에 직면한 인류 보편적 문제를 아르헨티나라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다루고 있다. (John S. Brushwood, *La novela hispanoamericana del siglo XX*, Fondo de Cultura Económica, México, 1984, p.128.)

24) 이 소설은 앞의 수필 *Historia de una pasión argentina*의 내용을 소설화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작품에서도 작가인 1인칭 화자를 내세워 작가의 의견을 수시로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문학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일부 비평가들은 평가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소설을 이념적인 문학작품으로 받아들이는 독자들에게는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Ibid., pp.129-130)

세계주의의 천박성을 거부하고, 그와 대비되는 고귀한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²⁵⁾

그는 개인과 가치를 엄격하게 두 부류로 나누었다. 「보이는 것」(lo visible)과 「보이지 않는 것」(lo invisible)으로 나누고, 「표피적인 것」(lo superficial)과 「심층적인 것」(lo profundo)로 나누었다. 사회의 위선적 가치들은 눈에 드러나는 표피적인 것들인데, 그것들은 한 개인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인식하는데 방해를 한다는 주장이다. 그와 같은 거짓된 삶을 그는 “텅빈 삶”(la vida blanca)이라고 불렀다.²⁶⁾ 이를 바탕으로 그는 아르헨티나인을 세부류로 나누었다. 첫째 부류는 표피적인 인간들로서, 잡다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신념이 없고, 자신의 역할이 대단한 것인 양 으스스대고 떠벌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실제로 아르헨티나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다. 둘째 부류는 자신을 잘 드러내지는 않고 묵묵히 땅과 함께 생활하면서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들로써 정직하고 속이 깊은 사람들이다. 셋째 부류는 자신처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다.²⁷⁾

그가 보기에 아르헨티나인 대부분의 삶이 이러한 표피적인 삶으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인의 진정성을 찾는 일은 작가로서 시급하고, 긴요한 과제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마예아가 보기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중심으로 한 도시인들은 천박하고 경멸스런 아르헨티나인이었고, 농촌에 사는 아르헨티나인이 참된 모습의 아르헨티나인이었던 것이다. 유럽으로부터 이민들이 밀려오면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동시에 사회 전체가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던 당시 아르헨티나의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5) Jean Franco, Op.cit., p.354.

26) Ibid., pp.353-354.

27) Eduardo Mallea, *Historia de una pasión argentina*, pp.72-88.

IV. 거대 도시, 기술 문명시대의 정체성 인식

보르헤스와 함께 현대 아르헨티나 문학에서 아르헨티나인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많이 언급되고 있는 또 다른 작가는 에르네스토 사바또이며, 그의 작품들 중에서도 『영웅과 무덤에 관하여』(*Sobre héroes y tumbas*, 1962)가 가장 많이 언급된다. 대학시절 반정부활동에 참가한 진보적 지식인이자 물리학자로서 장학금을 받고 프랑스 쿼리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하던 그는 과학을 통하여 인간과 우주의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 과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문학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따라서 그의 문학세계는 에두아르도 마예아에서 보듯이 비록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그 한정된 공간을 초월해 모든 보편적인 인간들과 관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비평가의 말대로 그의 작품은 중남미인이거나 아르헨티나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대 문명 속에 사는 인간과 그의 운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보편성을 담보하고 있다.²⁸⁾ 하지만 그 자신이 수필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인물과 행동을 통해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명제를 다루는 것이 소설이며, 한 작품이 심오하다면 그것 자체로 민족적 특성을 드러내는 작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의 작품이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아르헨티나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그에 따르면, 한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꿈과 현실은 그의 유아기와 그의 조국을 바탕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작가가 의도하건 하지 않건 간에 깊이 있는 작품은 그 인물의 감정과 고뇌, 인종적 갈등과 심리적 갈등을 표현할 수밖에 없고 한 역사적 시기의 국가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²⁹⁾

28) Angela B. Dellepiane, *Ernesto Sábato: El hombre y su obra*, City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Las Américas Publishing Company, 1968, p.295.

29) Ernesto Sábato, *El escritor y sus fantasmas*, pp.61-3.

물론 그가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정되고 전형적인 아르헨티나인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 있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사바토는 인간의 정체성은 그 시대와 환경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의 소설에서 발견하는 아르헨티나인은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사회의 산물이며 그 정체성은 끊임없는 변화의 가능성 위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영웅과 무덤에 관하여』에서는 여러 유형의 아르헨티나인이 발견된다. 대부분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인들이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20세기 중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이미 아르헨티나의 핵심이었고, 사회, 경제적인 주요 지표로 볼 때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인구로 보나 경제적 비중으로 보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와 거의 동의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곳은 아르헨티나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들어 있고 거대도시 문화, 서구적 자본주의 문화와 만나는 곳이다.³⁰⁾ 그러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살고 있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고뇌를 그리고 있는 소설이 바로 『영웅과 무덤에 관하여』이다.

주인공 마르틴은 17세의 소년으로 작품에 등장한다. 그의 행동이나 태도는 애매하고, 내성적이다. 자신을 표현하는 일에도 어색함을 느낀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신을 낳은 것을 몹시도 후회하는 어머니 아래서 마치 서자처럼 냉대를 받으며 자랐다. 그의 아버지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나약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부모에 대한 그의 증오는 해가 갈수록 커져갔다. 그는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도, 자신과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는 외로운 처지라는 것을 인식하였기에 공허함과 절망 속에서 방황

30) 사바토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관해 언급하면서, 그곳은 가우초의 문화적 전통이 끝남을 의미하고 아르헨티나인들로 하여금 자국의 경계를 벗어나 법제적인 것으로 향하게 하는 무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Ernesto Sábato, *Páginas vivas* Ernesto Sábato, Buenos Aires, Editorial Kapelusz, 1974, p.53.) 작가의 말대로, 아르헨티나의 정체성의 근간을 이룬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여겨져 왔던 가우초 문화는 이 작품의 인물들이나 배경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이민의 역사, 내전의 역사 등은 이 작품 속에 그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

하였다. 마르틴에게 있어 어머니의 상실, 아버지의 부재는 존재의 뿌리를 상실한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채우기가 매우 힘든 공간이었다. 마르틴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거리를 방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독자는 마르틴의 행동에서 대부분의 아르헨티나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마르틴에게서 혈통적, 문화적 뿌리에 대한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아르헨티나인의 정신적 상실감과 공허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오늘날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애매하고 복잡한 요소들 속에서 확고한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공허함을 메워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를 방황하다가 알레한드라를 만난다. 알레한드라에게서 모정과 우정을 동시에 얻고자 하였다. 자신의 고독과 불안감을 없애 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그녀에게 발견했지만, 알레한드라 역시 자신의 현실적 문제와 존재론적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파멸하고 만다. 알레한드라의 외모는 마치 모호한 그녀의 정체성을 암시라도 하듯 애매하게 그려진다. 그녀의 행동과 성격 또한 마르틴에게 쉽게 이해되지도 않고 예상할 수도 없다. 가까이 다가온 듯하다가도 갑자기 멀리 달아나는 존재이다. 마리아나 빼뜨레아는 알레한드라의 모습에서 아르헨티나의 속성들을 발견한다. 마르틴이 보기에 그녀는 편안하게 보호해주는 느낌을 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과격하고 잔인한 성격을 지닌 모순적인 존재이다. 중앙집권주의자의 후손이면서도 연방주의를 지지하는 그녀는 아르헨티나의 어둡고 모순적인 역사가 응결된 존재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³¹⁾

알레한드라 역시 마르틴과 유사한 과거를 지닌 존재이다. 그녀 역시 불행한 가정 속에서 자라났다. 더구나 자기 아버지와 근친상간의 관계 속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 역시 순수한 마르틴에게서 평온함과 모정을 느꼈고, 나아가 삶의 희망을 발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

31) Mariana Petrea, *Ernesto Sábato: la nada y la metafísica de la esperanza*, Ed. José Porrúa Turranza, S.A., Madrid, 1986, p.142.

두 사람은 서로 상대를 통해 고독에서 벗어나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려 몸부림쳤다. 하지만 알레한드라는 자신의 불행하고 타락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하고 만다. 알레한드라의 아버지 페르난도 역시 자신의 정체와 존재의 의미를 찾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지하세계를 방황한다.³²⁾ 페르난도와 알레한드라를 통해 재현되는 현대아르헨티나인의 고뇌와 행동의 중요한 동인이 되는 내면세계를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작가의 관심이 이 지하세계에 대한 탐구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르노는 마르틴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지식인이다. 그는 작가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인물로서 역시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아르헨티나 지식인의 전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물들은 에두아르도 마예아의 분류에 따르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적 의미를 탐구하는 셋째 부류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이들 외에도 이 소설에는 부르주아적 가치를 지니고 표피적 삶을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인을 나타내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보르데나베와 몰리나리가 그런 인물들인데, 이들은 조롱하는 듯한 태도로 위선적인 언행을 일삼는 인물들이다.

그렇다고 사바또가 절대적인 비관주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마치터널의 마지막에 빛의 세계로 향하는 출구가 보이듯이, 절망에 빠진 마르틴에게 희망의 불씨를 건네주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마예아의 분류에 따르면 진실한 사람들의 부류에 속할 수 있는 인물로서, 부씨치와 오르펜시아 빠스가 그들이다. 부씨치는 트럭운전수로서 절망에 빠진 마르틴을 새로운 희망으로 상징되는 남쪽 끝 지방으로 데려가는 인물이다. 그는 건장한 체구에 소년같은 표정을 잃지 않은 진실한 인간이다. 이름에서 암시되듯이 오르펜시아 빠스는 창녀로서 마르틴에게 어머니 같은 손길을 준다. 그녀는 삶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주면서 마르틴을 절망에서

32) 그의 지하세계에 보고서는 인간 내면세계에 대한 탐구서라고 할 수 있다. 초현실주의에 대한 작가의 관심과 인간의 무의식 세계에 대한 탐구가 이 부분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구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인구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이민의 후손을 대표하는 인물인 띠또 다르캥헬로가 있다. 띠또 다르캥헬로는 이탈리아 이민의 후손으로 유럽과 아르헨티나 사이에서 확고하게 정신적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아르헨티나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마예아와 마찬가지로 사바또 역시 이 소설을 출간하기 이전에 철학과 문학에 관한 여러 권의 수필집을 내면서 아르헨티나의 민족성과 정체성, 그와 관련된 문학적 테마들을 언급한 바 있다. 사바또는 자신의 수필에서 아르헨티나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경계가 불명확하고, 복잡적이고, 가변적이고, 혼돈스럽다. 마치 전 세계적 대혼돈과 같은 것이다. 이 복잡다단하고 모순적인 현실을 완벽하고 심도있게 그려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소설과 작가들이 필요할 것이다. 쇠퇴하는 소수 귀족들, 소외된 가우초, 신분상승을 이룩한 미국인들, 실패하여 가난 속에 사는 이민, 그의 아들과 손자들, 세계시민이라 할 수 있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시민, (무관심하고 조국을 상실한 듯한 사람들로서, 이곳에서 마치 호텔에 머무르듯 지내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모든 감정은 서로 뒤섞여 있고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³³⁾

결국 이 소설은 자신이 수필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다시 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는 자신이 수필을 통해서 언급한 대로 아르헨티나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을 소설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 아르헨티나인의 정체성은 소설에서 예견되듯이 쉽고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19세기의 작품들에서처럼 이분법적인 도식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대상이다. 더구나 그것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 위치하기 때문에 더욱 포착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사바또는 보르헤스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의 문화는 인디오 전통문화의 뿌리도 없고, 그렇다고 로마나 파리의 문화를 재건한 것도

33) Ernesto Sábato, *El escritor y sus fantasmas*, p.16.

아니지만, 그 뿌리가 유럽적인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사바또에 따르면, 문화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언어와 종교, 그리고 혈통이 유럽에서 온 것이다. 그에게 있어 가우초 문화와 인디오 문화는 현재 아르헨티나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다. 아르헨티나의 유럽적 문화의 뿌리는 가우초의 문화와 인디오의 문화가 아니다. 광활한 팜파와 텅빈 황무지 위에 이식된 유럽의 문화이다. 거기에서 아르헨티나인들의 정서적 특성도 유래되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유럽적인 문화를 가졌다는 점에서 아르헨티나인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럽에서 온 이민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내성적인 경향을 띠면서 고독과 향수를 많이 느끼게 되었고, 유럽인들이 느끼지 않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³⁴⁾

사바또에 따르면, 유럽의 문화는 아르헨티나의 대지 위에 옮겨지는 순간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문화와는 다른 문화이다. 유럽문화를 뿌리로 삼고 있지만 중남미 대륙에 속해 있다는 지정학적 여건이 아르헨티나인들로 하여금 같은 언어와 역사, 풍속을 지니고 있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유대의식을 같게 한다. 이러한 이중적 속성은 위험성을 갖기도 하지만 동시에 풍요로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³⁵⁾

변방적 위치가 문화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을 작용한다고 기대하는 보르헤스와 유사한 관점에서, 사바또는 자국의 문화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유입된 문화이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도 다양성과 역동성이

34) Ibid., p.64. 서구문명에 의해 팜파에서의 전통적인 삶을 빼앗긴 가우초 역시 향수와 열등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우초나 그의 후손이 아니라도 가우초 문화를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있던 꼬리오요들 또한 가우초 문화에 대한 향수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영웅과 무덤에 대하여』에서 띠또 다르강헤로가 자신의 아버지는 유럽에 두고 온 고향생각으로 나날을 보낸다고 언급한 내용은 아르헨티나인들의 향수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Sobre héroes y tumbas*, Editorial Seix Barral, Barcelona, 1985, p.164)

35) Ernesto Sábato, *Páginas vivas Ernesto Sábato*, pp.94-95.

라는 긍정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현실 위에서 아르헨티나적인 것이라고 확실하게 규정할 수 있는 놀라울 만큼 순수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³⁶⁾고 주장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독립이후 문학 속에서 아르헨티나인의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탐구 양상이 어떠했으며 어떤 전개과정을 보여 왔는지를 사회, 경제적 변화와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독립초기 각 지방의 토호세력인 까우디오들의 난립으로 근대국가의 확립이 어려운 시기에 글을 쓰던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서구식 근대 국가 모델을 지향하던 자유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 당시의 아르헨티나는 크게 두 개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분권주의에 입각한 연방주의 국가를 지향하던 대지주인 까우디오들과 팜파에서 유목에 종사하던 gaucho들, 해안지방의 하층 계급이던 흑인 혼혈들이 구성하는 하나의 세계가 있었고,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상업과 무역에 종사하던 중상층의 백인 *criollo*와 전문인, 지식인들로 구성된 또 하나의 세계가 있었다. 당시 유럽식 사고와 가치를 지닌 엘리트 지식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그 두 세계는 한 국가를 이루는 다양성으로 용인되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문명과 야만’이라는 대립적 시각을 아르헨티나의 지리, 인종,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현실에 적용시킨 지식인 엘리트들의 태도가 반영된 당시 문학작품 속에서 국가적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대상은 발견될 수 없었다. 다만 그들은 소위 ‘문명’의 요소들이 아르헨티나의 국가적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36) Ibid., p.105.

그러기에 당시 문학작품에 주로 등장하는 세계는 자유주의 지식인들을 포함한 ‘문명’의 세계보다는 그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어 마땅한 세계였고, 사라져야 할 ‘야만’의 세계였다. 팜파의 원시적 세계와 로사스의 독재 체제는 당시 연약한 자유주의 지식인들에겐 감히 접근하고 대항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국외자적 입장에서 관찰하고 글을 통하여 고발하는 것뿐이었다. 에스페반 에체베리아의 「도살장」에서 도시 전체를 지배하는 ‘야만’적 세계와 나약한 한 젊은 자유주의자의 어이없는 죽음, 그리고 이를 묘사하는 화자의 태도는 당시 아르헨티나를 구성하는 두 세계의 이질성과 이를 바라보는 지식인들의 태도와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1852년 로사스 독재정권의 몰락과 함께 연방헌법이 제정되면서 아르헨티나는 근대국가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동시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된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 속에서 지식인들은 이제 사라져가는 아르헨티나의 전통적 요소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서구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르헨티나의 정체성에 대해 처음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거의 절대적인 선으로 간주되던 서구적 사회모델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되고 자신들의 뿌리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구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가우초, 마르틴 피에로』는 아르헨티나의 전통적 삶을 가장 잘 상징하던 가우초의 삶이 도시화와 산업화에 밀려 사라질 운명에 놓이게 되던 당시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서구의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물질주의,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개인을 희생시키는 제도 등 소위 ‘문명’의 세계가 낳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현상들에 대한 반성이 시작되고 1920년대, 『돈 세군도 솜브라』를 쓴 리카르도 구이랄테스와 1930년대 에두아르도 마예아까지 이어진다. 물론 아르헨티나의 국가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전시대에 인식되었던 두 세계 사이의 괴리는 얼마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분법적 시각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집단

적 정체성의 축은 꺾음을 떠나 도시로 이동되었음을 모든 문학 작품들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930년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에 이르러 비로소 아르헨티나의 현실과 정체성에 대한 이분법적 관점은 깨어지게 된다. 그는 가우초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의 끄리오요 문화의 전통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아르헨티나의 정체성의 뿌리는 유럽이라고 단언한다. 유럽적 문화요소들이 아르헨티나라는 새로운 토양에서 독특한 문화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여겼다. 끄리오요적 전통은 유럽문화에 스며들어 하나의 새로운 아르헨티나의 문화와 정체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작가들이 대립적으로 보던 두 세계는 보르헤스의 문학작품 속에서 선악의 관계를 벗어나 대등한 관계에 놓이고, 긍정적 통합을 이루게 된다. 이것은 작가가 도시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에, 두 세계가 만나는 접점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변두리에서 살았고, 동시에 유럽문화에 전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모든 문화를 넘나드는 범세계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그 주변이 거대도시로 변해가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아르헨티나와 거의 동의어가 되어갔고, 아르헨티나의 농촌에서도 과거 가우초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물론 아르헨티나인의 언어, 종교, 혈통은 유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은 어떤 작가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민의 역사와 그로부터 유래하는 아르헨티나인의 자부심과 열등감, 향수 따위도 집단적 정체성을 논하는 데 있어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요소들이다. 하지만, 에르네스토 사바토를 비롯한 오늘날 작가들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아르헨티나 국민이 비록 구체적인 국적과 국경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 다른 나라의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과 동일하고 보편적인 문제와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아르헨티나인의 국가적 정체성은 전 세계 모든 대도시인의 정체성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게 이른 것이다. 이제 아르헨티나인의 삶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것은 가우초 문화의 유산도 아니요, 유럽문화의

유산이라고 단순히 규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문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니고 있는 특성이다. 가정과 사회에서 인간적 유대가 상실되면서 초래되는 소외와 고독, 절대적 가치의 상실과 비윤리적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쾌락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의 만연 등이 그것이다. 이제 아르헨티나의 현대 작가들도 세계 대부분 지역의 작가들처럼 현대의 ‘문명’세계가 낳은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정체성을 다루기에 이른 것이다.

참고문헌

- 민만식, 강석영, 최영수 공저, 『중남미사』, 민음사, 1993.
- 베아트리스 사를로, 『보르헤스와 아르헨티나의 문학』(김한주 역), 인간사랑, 1999.
- 이성형 편,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사상』, 까치, 서울, 1999.
- Borges, Jorge Luis, *Aleph, Obras completas*, Emecé editores, Barcelona, 1989.
- _____, *Discusión, Obras completas*, Emecé editores, Barcelona, 1989.
- _____, *Historia universal de la infamia, Obras completas*, Emecé editores, Barcelona, 1989.
- Brushwood, John S., *La novela hispanoamericana del siglo XX*, Fondo de Cultura Económica, México, 1984.
- Carpentier, Alejo, *El reino de este mundo*, Obras completas II, Siglo veintiuno editores, 1983.
- _____, *La novela latinoamericana en vísperas de un nuevo siglo y otros ensayos*. Siglo veintiuno editores, 2a edición, 1981.
- Dellepiane, Angela B., *Ernesto Sábato: El hombre y su obra*, City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Las Américas Publishing Company, 1968, p.295.
- Franco, Jean, *Historia de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Ariel, Barcelona, 1975.
- Güiraldes, Ricardo, *Don Segundo Sombra*, Editorial Porrúa, México, 1982.
- Hernández, José, *Martín Fierro*, Editorial Porrúa, México, 1985.
- Historia de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UNED, Unidad 1. Madrid. 1976.
- Katra, William H., “Sarmiento y el <Americanismo>”, *Identidad*

- cultural de Iberoamerica en su literatura*, Saúl Yurkievich (Coordinador), Alhambra, Madrid, 1986.
- Mallea, Eduardo, *Historia de una pasión argentina*, Editorial Sudamericana, Buenos Aires, 1986.
- Mármol, José, *Amalia*, Editorial Porrúa, México, 1984.
- Navas Ruiz, Ricardo, "Personaje e identidad nacional: de *Martín Fierro* a *Don Segundo Sombra*", en *Identidad cultural de Iberoamérica en su literatura*, Editorial Alhambra, Madrid, 1986
- Petrea, Mariana, *Ernesto Sábato: la nada y la metafísica de la esperanza*, Ed. José Porrúa Turranza, S.A., Madrid, 1986.
- Sábato, Ernesto, *El escritor y sus fantasmas*, Seix Barral, Barcelona, 1983.
- _____, *Páginas vivas Ernesto Sábato*, Buenos Aires, Editorial Kapelusz, 1974,
- _____, *Sobre héroes y tumbas*, Editorial Seix Barral, Barcelona, 1985.
- Sarmiento, Domingo Faustino, *Facundo o civilización y barbarie*, UNAM, 1982.
- Savampa, Maristella, "El dilema argentino: civilización y barbarie", de *Sarmiento al revisionismo peronista*, Buenos Aires, Imago Mundi. 1994.